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 제32회 콜로키움

젠더 관계의 전환과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 ❖ 일시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 ❖ 장소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W12-2), 201호
- ❖ 발표 | 엄혜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 토론 | 이지영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 참여 |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 병행(참여 방법은 2면 참조)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 발표자 | 엄혜진(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젠더교육연구소 이제 IGE 소장을 역임했다.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주체의 구성과 페미니즘 지식의 양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여성학 개론서를 통해 본 ‘한국 여성학’ 지식 구성의 여정”(2023),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기획”(2021), “여성의 자기계발과 페미니즘의 불안한 결속: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2021), “페미니즘 교육은 (불)가능한가?”(2019)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페미니즘 교육은 가능하가』, 『그럼에도 페미니즘』, 『페미니즘의 개념들』 등이 있다.

● 발표내용

최근 들어 능력주의에 관한 사회 담론과 학술 논의가 활발하다. 불평등의 심화뿐 아니라, 이를 공정하다고 믿고 정당화하는 원동력이 능력주의라는 데 주목하면서다. ‘젠더 갈등’이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사회화, 정치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한 이것이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이후 지난 20년 간 ‘공정’을 둘러싼 이진투구와 합의의 실패 속에서 벌어져 온 것이라는 점을 환기할 때, 페미니즘 논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페미니즘은 능력주의의 탄생과 정치적 합리화의 토대인 근대 사회계약론이 시민적 자유의 주체를 남성으로 삼고, 성적 차이를 기껏해야 개인적 차이로 환원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는 능력주의에 대한 젠더 분석의 고유성뿐 아니라, 젠더 분석을 경유함으로써만이 가시화될 수 있는 능력주의 비판의 구체적 심급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공정 논란이 왜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관통하게 되는지를 밝혀주게 된다. 본 발표는 분배 이론과 사회 정의론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해온 페미니스트 정치철학 논의를 중심으로 능력주의에 관한 젠더 분석의 차원들을 제시하고 현재적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 온라인 참여 방법

- ZOOM 설치 후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
- 링크: <https://cnu-ac-kr.zoom.us/j/82575753431>
- QR 코드



- ZOOM은 18시 45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현장 참여 방법

- 장소: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W12-2) 201호
- 석식 도시락 준비를 위해 아래 링크에서 참여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예약 링크: <https://naver.me/GcnokPLS>
- 저녁 식사는 18시 20분 부터 진행됩니다.